

지역 소식

새로 부름받은 원격 봉사 선교사

지난 8월, 한국 커뮤니케이션부(구 홍보부)의 새로운 봉사 선교사로 신용인 장로와 지효선 자매 부부가 부름 받았다. 신 장로 부부는 한국 대전 선교부 회장으로 2013년부터 3년간 봉사한 이후 5년 만에 다시 한국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되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현재 그들이 거주하는 미국 유타주에서 '원격 봉사 선교사'로서 온라인으로 봉사한다. 원격 봉사 선교사로 부름받은 부부는 이들이 교회 전체에서 최초이다.

원격 봉사 선교사는 그들이 속한 부서인 커뮤니케이션부에서 지명받은 일을 수행하면서 복음을 나누고 성도들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용인 장로는 "전임 선교사들이 줌을 통해 복음 토론을 진행하는 경우 함께 참여하여 가르칩니다. 또한 온라인상으로 구도자와 성도들에게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물과 복음 교리들을 후기 성도 광장 카페의 (<https://cafe.naver.com/mormonsquare>) 후광 스페셜 신용인 칼럼을 통해 나눕니다."라고 설명한다.

신 장로 부부는 대전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던 추억과 축복을 회상했다. "천사 같은 선교사들과 성신의 도움으로 봉사하고, 영적으로 감화되어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구도자분들과 개종의 기쁨을 나누던 순간과 성도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신용인 장로와 지효선 자매는 현재의 원격 봉사 선교 사업은 이제 막 시작 단계기 때문에 교회의 커뮤니케이션부를 통해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전하며, 과거에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며 얻은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다시 한번 한국을 위해 충실히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성도들이 복음 교리와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더욱

돈독히 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또한 학자적인 차원에서 회복된 충만한 복음 교리를 다른 기독교 회원들과 나눔으로써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입니다."

신 장로는 교회와 사회의 여러 직책에서 지도자로 봉사한 경험이 많다. 그는 고학생으로 어려웠던 12년간의 유학 생활, 커뮤니케이션 분석 방식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 세계 여러나라의 대기업 임원, 미국과 한국에서의 대학원 교수, 여러 교회 부름, 복음속에서의 가정 생활 등의 경험을 토대로 체험했던 개인적인 리더십 철학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산은 개개인의 회원이며, 조직 안에서나 사람 사이에서의 많은 문제를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여러 곳에 살면서 얻게 된 영적이고 특별한 경험을 한국의 회원들과 나누며 봉사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장로 부부는 팬데믹 상황이 나아지면 한국을 방문하여 그리운 성도들을 만나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소망을 전하며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다. "1970년, 제가 침례를 받았을 당시에는 이 회복된 복음이 저와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큰 축복이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5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저는 제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많은 분들의 영생을 위해서 미약한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축복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회복된 경전을 통해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살아 계신 선지자와 성신의 도움으로 오는 모든 축복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용인 장로는 1970년 당시 서울 서부



지효선 자매와 신용인 장로 부부

지부에서 침례를 받았다. 지효선 자매는 1973년 목포 지부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들은 1977년 서울 녹번 와드에서 결혼하였으며, 같은 해에 유타주 프로보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슬하에 6명의 자녀와 12명의 손자녀가 있다.

신 장로는 미국에서 감독, 고등평의원, 와드 대제사 그룹장 등으로 봉사했으며 네덜란드에서 지부 회장단 일원으로, 한국에서는 서울 서 선교부 회장단, 분당 와드 복음 교리반 교사로 봉사하는 등 세계 곳곳의 교회에서 봉사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선교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부름에서 힘써 왔다. 스테이크 선교부 회장, 미국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지부 회장, 그리고 한국 대전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지효선 자매는 1974~1976년에 서울 선교부와 부산 선교부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서울 서 스테이크 초등학교 회장단, 네덜란드 나이메겐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분당 와드 세미나리 교사 등으로 봉사했다. ■

“확장 지향적 통합을 이룹시다!”

- 청라 와드 집회소 헌납식 및 통합 와드 대회 -

지난 2021년 10월 24일, 인천 계양구에 마련된 서울 서 스테이크 청라 와드 신축 집회소의 헌납식이 열렸다. 또한, 기존 김포 와드와 청라 와드가 통합되어 새롭게 개편된 청라 와드 대회도 함께 열렸다.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집회소는 19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되었으며, 대지 면적은 617평이며, 건물 전체는 약 1,900평 규모로 3개 조직의 230명의 인원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 건물이다. 추후 150명 규모의 한 개 조직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도 확보되어 있다.

헌납식은 지역 칠십인 권영준 장로의 감리하에 이루어졌으며, 서울 서 스테이크의 이인호 회장이 신축 집회소의 헌납을 기념하는 말씀을 전했다. 이 회장은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의 말씀을 인용하며 성도들에게 “기도, 경전 공부, ‘와서 나를 따르라’를 공부하는 것을 매일의 이정표로 삼을 것”을 권유했다. (“날마다 이루어지는 회복”,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2021년 10월 연차 대회) 또한 헌납된 집회소가 우리의 불완전함을 온전케 하는데 도움이 되는 주님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새로운 집회소가 우리와 후손들이 강화되고 번성하여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어울릴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영준 장로는 새로운 집회소가 건립되기까지 수고한 모든 성도와 역원에게 감사를 전했다. “주님의 손길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초기에 나부 성전과 커틀랜드 성전이 건립될 때처럼 이 집회소가 있기까지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서



청라 와드 전경(밤)

새로운 집회소를 주실 때, 이를 위해 소망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회원들의 신앙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덧붙여, 그는 집회소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 집회소에서 우리의 신앙을 갈고 닦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회소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저의 신앙이 흔들렸을 때 집회소의 추억이 저를 지탱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곳에서 신앙의 추억을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권 장로가 말씀에 이어 새로운 집회소를 헌납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모든 식순이 마무리되었다.

헌납식 이후, 두 와드가 통합된 최초의 청라 와드 대회가 진행되었다. 구 김포 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했던 배판봉 형제가 청라 와드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름받았다. 와드 대회의 감리를 이끈 권영준 장로는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통합이라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깨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는 때때로 통합을 하면 교회가 축소되는 경험을 합니다. 청라 와드는 축소 지향적 통합이 아니라 ‘확장 지향적 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장 지향적 통합을 위해서는 고민하며 방황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을 위로할 때 시온의 경계가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입니다.”

초기 공방 지부 시절 초대 지부장으로 봉사했던 김두성 축복사는 헌납식과 와드 대회에 참석한 소감을 전했다. “여러 해에 걸친 역원들과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제는 준비된 교회의 인재들과 함께 단합하여, 제2의 교회 역사를 시작하고,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목적을 달성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



청라 와드 신축 집회소

부부 인봉, 영원한 가족이 되는 축복

서 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의 이형신 형제와 김수진 자매는 최근 현세와 영원을 위한 부부 인봉*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영원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신앙을 행사했다. 영원한 부부로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한 이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신앙을 행사함

김수진 자매는 15살에 복음을 알게 된 후 줄곧 복음 안에서 영원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소망했다. 배우자를 찾는 기회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지만, 바라던 결과가 있지 않을 때는 좌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큰 율법이자 축복인 해의 왕국의 결혼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을 행사했다. “저는 매일 경전을 읽으며 축복문도 함께 읽었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를 공부하고, 교회에서 맡은 부름에 충실하려 노력했습니다. 명상, 감사 일기 쓰기 등을 통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소망을 계속 키워 갈 수 있었습니다.”

이형신 형제는 2015년경, 몇 년간 멀어져 있던 교회로 돌아왔다. 다시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 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화목하게 사는 교회 친구들의 모범을 지켜보았다. “복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친구들이 정말 좋아 보이면서도 내심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영원한 가족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고, 매일 아침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남은 제 생애 동안 저의 영원한 가족을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축복을 구했습니다. 다소 늦은 나이였기에, 저의 소망을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셔도 불평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요.” 2018년부터는 매주 성전 의식에 참여하며 해의 왕국의 결혼에 대한 소망을 더욱 키워 나갔다. 성전에 다니기 전에는 매주 수요일 농구를 하러 교회에 갔는데, 함께 농구를 하던 팀원 중 한 명이 “형제님, 지금 농구를 할 때가 아닙니다. 성전에 가서야 합니다!”라고 대뜸 말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말에 마음이 크게 움직였던



김수진 자매와 이형신 형제

그는 이후 3년간 매주 성전 의식에 참여했다. “성전 의식에 꾸준히 참여하며 성전의 축복에 대한 간증이 생겼습니다. 영원한 결혼에 대한 저의 소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만남과 특별한 데이트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김수진 자매가 소속되어 있던 울산 지방부 경주 지부 회장인 이주형 형제(현재 광주 스테이크 나주 지부 소속)의 도움 덕분이다. 그는 이형신 형제를 오래전 함께 서울 북 스테이크에 다녔던 동갑내기 청소년으로 기억한다. 2017년 무렵, 이주형 형제는 수십 년 만에 성전에서 우연히 이형신 형제를 보게 되었다. 그는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그저 얼굴만 본 것이었지만, 이 형제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올해 7월, 문득 “김수진 자매에게 이형신 형제를 소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영감처럼 떠올랐다. “저는 그 무렵 ‘와서 나를 따르라’에서 ‘성신’에 대해 배웠는데, 이 생각이 성신으로부터 오는 영감임을 확신했습니다. (교리와 성약 68:1~8) 저는 곧바로 영감에 순종했고,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두 사람을 서로 소개했습니다.”

이 형제와 김 자매는 한 달간 전화로 서로를 알아 가며 호감을 키웠다. 이 형제는 그 후 첫 만남을 이렇게 회상한다. “자매님을 만났을 때 소설이나 영화에서 본 주인공을

눈앞에 마주한 것만 같았고,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데이트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각자의 노력 이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고, 분명히 그 힘이 하늘의 도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호감이 점점 확신으로 자리 잡는 동안, 이들은 특별한 데이트를 이어 갔다. 매일 아침, ‘와서 나를 따르라’를 함께 공부한 것이다. “함께 경전을 공부할 때, 저희의 데이트 과정에 주님의 도움과 인도가 함께하며, 우리의 관계를 돌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와서 나를 따르라’를 함께 공부하면 가족의 결속력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트를 이어 가던 이들의 관계는 짧은 기간임에도 자연스러우면서도 빠르게 발전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서울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부부 인봉을 통해 영원한 부부가 되었다. 김 자매는 성전에서 인봉을 받던 날의 감동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인봉자의 재치와 훌륭한 인도 덕분에 기쁨이 가득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느낄 수 있었고, 하늘도 축하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가족의 축복을 누리

이들은 서로를 ‘하늘의 선물’이라고 표현한다. “성전 인봉으로 영원히 맺어진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깃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 평안, 안정감, 영원한 동반자가 있다는 든든함, 영원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축복을 누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결혼을 간절하게 바라는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덧붙인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마음속 소망을 들으시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라면 분명히 들어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치지 말고 소망을 지니고, 신앙을 행사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

*부부 인봉: 최근 교회 정책 변경에 따라 ‘성전 결혼’이라는 용어 대신 ‘부부 인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내가 선교 사업을 하게 된 이유



서울선교부에서 봉사하는 김민재 장로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 돈을 못 벌어도 괜찮으니 바르게만 자라 달라고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항상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던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고, 친구들과 또한 학업이나 진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고민에 관심이 없었기에 외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도 울적한 기분에 휩싸여 길 위를 서성이고 있었는데 선교사 두 명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선교사였지만, 이상하게도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로 가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물문경 안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와 같은 제가 갖고 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 도와주었습니다. 물문경이라는 이 작은 책 안에 제가 궁금해하던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모두 들어 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누구도 관심 없어 보였던

제 질문들에 진지하게 답해 주고 마음을 나눠 주는 선교사들도 좋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사야서 5장 2절을 읽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나이다.” 갑자기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고, 마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구절대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으니 주님의 계명대로 생활하며 그 안에서 이 행복함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같은 해 8월, 고등학교 2학년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군에서 제대한 후 선교 사업에 나가는 것에 대해 고민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선교 사업을 가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거라는 주변 사람들의 걱정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선교 사업을 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단기간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됐고, 반년 정도 조선소에서 시멘트를 바르는 일을 했습니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일하던 어느 날, 한쪽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백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로 인해 직장에서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힘들고 외로웠던 시기였지만 먼저 주님의 일을 선택한다면 방편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교리와 성약 6:36)

어느덧 서울 선교부에서 봉사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동반자와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계획을 세우며, 주님의 영과 함께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선교 사업에 대해 생각할 때, 주님께서 저와 같은 미숙한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시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그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 연습을 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계시와 영감을 구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엘마서 37:35절에는 “네가 젊었을 때에 지혜를 배우라. 참으로 네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배우는 것들이 제 평생의 습관이 되고, 제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명하시는 일을 먼저 할 때,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사업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원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안내: 전임 선교사 3명



윤정현 자매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서울 선교부



이하은 자매
경기 스테이크
신갈 와드
부산 선교부



황정현 형제
전주 스테이크
완산 와드
부산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변경

전주 스테이크

제1보좌: 김영철 형제
(전임: 김요안 형제)
제2보좌: 정기환 형제
(전임: 김영철 형제)

김천 지부 지부 회장: 김창호 형제(전임: 이태건 형제)
덕진 와드 감독: 박대천 형제(전임: 홍기섭 형제)
안양 와드 감독: 심찬보 형제(전임: 박상섭 형제)
정읍 와드 감독: 김건국 형제(전임: 양성철 형제)
청라 와드 감독: 배판봉 형제(김포 와드와 청라 와드가 통합되어 청라 와드가 됨. 전임: 청라 와드 정기용 형제, 김포 와드 배판봉 형제)